

진도군·농어촌공사, 난개발 대응·주거환경 개선·삶의 질 높인다.

⌕ 펜앤호남 | ⌚ 승인 2025.03.24 07:27

김희수 군수 “지속 가능한 진도형 농촌모델 구체화할 계기 될 것”
농촌의 미래를 재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진도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위·수탁 계약서

2025. 2.



진도군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난 18일 진도군(과 함께 '진도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했다. [진도군]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지난 18일 진도군(군수 김희수)과 함께 「진도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난개발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진도군의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공동체 회복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농촌 공간의 효율적 배치 △기반시설 확충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지역 특성과 차별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식과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가 포함돼, 진도형 농촌공간 모델 구축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진도군과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간의 꾸준한 협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추진되는 재구조화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진 지사장은 “이번 사업은 농촌다움을 지키면서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농촌공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농촌의 위기 속에서도 진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군=펜앤호남 honam4689@naver.com



펜앤호남 honam4689@naver.com